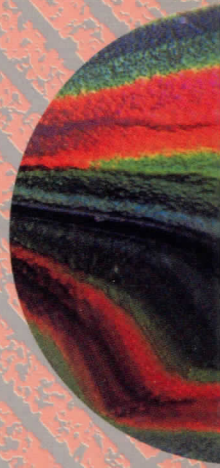


산천에 봄은 다시오고



김·문·향·의·꼭·잡

해성

김문홍 회국집

김문홍 회국집

김문홍 회국집

산천에 봄은 다시 오고

산천에 봄은 다시 오고

산천에 봄은 다시 오고

지은이/김문홍
펴낸이/김성배
펴낸곳/도서출판 해성

1996년 7월 10일 인쇄
1996년 7월 15일 발행

부산지 중구 중앙동 3가 19번지 성동빌딩 3층
전화/(051) 465-1329 · 465-0485 · 441-0485
팩시밀리/(051)465-0485
출판등록/1989년 4월 6일 제가 1-117호

값 6,000원

후배

公演텍스트로서의 戲曲

희곡의 운명은 公演이라는 현장 행위에 의해 좌우된다. 희곡은 공연에 의해 그 존재가치를 획득하고, 공연은 또한 희곡 텍스트에 의해 예술성을 인정받게 되어 있다. 詩나 小説은 독자가 있던 없던 활자화되면 존립의 근거를 마련하지만, 희곡은 관객의 입회하에 ‘지금 이곳’의 현장성에 의해 무대 형상화될 때만이 그 존립의 당위성을 얻게 된다. 그런만큼 희곡은 직접성을 가진 ‘보여주기’ 문학의 대표적인 장르이다. 희곡은 연극의 토양 속에서만 뿌리를 내리고, 연극은 또한 희곡으로부터 무한한 상상력의 자양분을 공급 받는다.

연극예술에 발을 들여놓은 지가 올해로 스물 두해째에 이른다. 처음에는 배우로 출발했다가 연출 작업을 했고, 마지막으로 희곡 창작에 정착을 하게 되었다. 연기자 생활을 통하여 상상력의 무한한 에너지를 절감했고, 연출 작업을 통하여 분석적 판단과 종합적 시각을 터득했다. 그리고 희곡 창작을 통하여 사회적 안목과 상상력의 중요함을 체득하기도 했었다.

이번 작품집은 첫번째 희곡집인 『안개주의보』 이후 8년만에 이루어 놓은 결실이다. 모노드라마 「북마전」과 「일몰에서 일몰까지」는 미공연 작품이고, 나머지 작품들은 모두 교사극단 한세벌과 다른 극단에 의해 공연이 되었다. 「수직환상」은 나의 데뷔작으로 80년의 어려움 상황 속에서 공연이 되어서인지 유달리 애착이 많이 가는 작품이다. 막을 울려 놓고도 그 주제의식의 강렬함과 당대 정치적 상황의 상징성 때문에 전 전공공해 하던 기억이 새롭다. 표제적인 「산천에 봄은 다시 오고」는 내

희곡적 세계의 방향 전환의 물꼬를 트는 작품으로, 이후 소재와 주제의식, 그리고 형식적 측면에서의 새로운 변신을 알리게 될 개연성이 크다. 이 작품을 계기로 내 희곡 세계의 제2기가 펼쳐질지도 모른다는 예감에 사로잡혀 있다.

희곡은 태어날 때부터 어치피 공연을 전제로 한 만큼 文學性보다는 現場性에 충실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들려주는 것보다는 보여주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관객은 연극을 보러 극장에 가는 것이지, 배우의 대사를 들으러 극장에 가지는 않을 것이다. 나의 지금까지의 희곡 창작은 ‘들려주기’라는 문학성에 치중되어 왔는데, 앞으로 ‘보여주기’의 공연 특성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하리라고 본다. 나의 제2기 희곡 창작 역시 그런 면에서 의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번 작품집의 발간을 계기로 公演 텍스트로서의 희곡 창작에 전념할 것을 다짐해 본다.

일곱 자식을 연극편에 내 보낸다. 귀중한 나의 자식들이 부디 좋은 사람들과 만나 무대 위에서 다시 태어나 주기를 바란다. 나의 연극적 상상력의 자양분을 준 모교의 이충섭 교수님, 내 자식들이 무대 위에서 뛰 어날 수 있게 판을 만들어 준 교사극단 한세벌의 가족들, 희곡이론의 심오한 세계에서 함께 호흡하는 우리극 연구회의 회원들과 부산창작극 연구회의 가족들, 무엇보다도 술과 축제의 신이며 연극의 신인 디오니소스의 충직한 후예들인 부산연극인들에게 사랑을 듬뿍 보낸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흔쾌히 출판에 협력해 준 김성배 사장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1996년 초여름의 길목에서.

산천에 봄은 다시 오고

처레

- 산천에 봄은 다시 오고 — 15
- 불쌍하신 우리 망제 — 61
- 일몰에서 일몰까지 — 93
- 日蝕 — 129
- 더러운 손 — 163
- 수직환상 — 213
- 복미전 — 265